



## 임플란트 후 매일 체크사항

저자 **주경미**

약학박사

경영학박사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임플란트가 무엇이며 어떻게 수술하는가?

#### 1. 임플란트의 정의와 수술방법

##### 1) 임플란트 정의

임플란트는 충치나 잇몸병으로 치아가 소실되었거나 사고 또는 종양 등으로 인하여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턱 뼈와 잘 붙는 재료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치과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인접한 자연 치아를 삭제하지 않으며, 치아가 없는 부분만 수복이 가능해서 인공 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도 하며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는 기존 틀니보다 안정적이며,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틀니의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뼈 흡수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 2) 임플란트 수술방법

- 마취를 한 후 잇몸을 절개하여 턱뼈의 모양이 보이도록 절개된 잇몸을 벌려줍니다.
-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하고 드릴링(drilling)을 하여 턱뼈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hole)을 만들어 준 후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플란트가 보이지 않도록 잇몸을 완전히 덮고 봉합을 하는 2회 수술 방법으로 시술하거나, 임플란트의 치유 지대주가 보이는 상태로 잇몸을 봉합하는 1회 수술법으로 임플란트를 턱뼈에 식립합니다.
- 지혈을 위하여 잇몸을 봉합한 부위에 거즈를 대고 가볍게 물고 있도록 합니다.
- 2회 수술법으로 시술 시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치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4~6개월 가량) 2단계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 2. 임플란트의 종류와 점검사항

환자의 뼈 및 잇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과의사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길이, 방향 등을 결정하는데 임플란트 보철의 종류는 식립 시기에 따른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그림 참고: 고정형 보철물-단일치 수복과 다수치 수복)

- 발치 즉시 식립법: 발치 즉시 시술
- 지연 즉시 식립법: 발치 후 6~10주 사이 수술
- 후기 식립법: 발치 3~6개월 후 수술

또한 수술 방법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1회 수술법: 임플란트 뿌리부위와 잇치아 부위를 동시에 식립하는 방법
- 2회 수술법: 임플란트 뿌리 먼저 심은 후 뼈와 유착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식립하는 방법

▶ 단일치 수복



▶ 다수치 수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뼈 속에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 수술 후 봉합은 1~2주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거하게 되는데 임플란트와 턱뼈의 골 유착을 위한 치유 기간은 아래턱의 경우 최소 2~3개월, 위턱의 경우 최소 4~6 개월이 필요하며 식립 부위의 뼈가 약한 경우에는 1~2개월이 더 소요됩니다. 뼈 이식을 한 경우에는 보통 6~9 개월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임플란트가 심겨진 부위의 뼈 상태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씹지 못하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바로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게 되면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뼈에 자리를 잡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수술 후 2~3일 동안은 치료 받은 부위의 반대편으로 식사하고 부드러운 유동식을 먹어야 하며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수분 섭취를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 후 처음 1년간은 임플란트 주위 뼈가 단단해지고 안정되는 시기가

므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도록 주의하고 임플란트 치아는 물론 자연 치아도 골고루 사용하여 특정 부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10년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전신 건강 상태,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므로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합니다.

##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사항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1. 임플란트 수술 전 주의사항

- 1) 치주염이 있는 경우나 구강 내 병소 유무를 미리 검사하여 임플란트 수술 전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2) 전신 질환 여부와 전염성 질환, 타 질환 치료 진행의 여부,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울혈성 심부전, 심내막염, 심장판막 질환 등) 병력이 있거나 내분비계 질환(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항진증(쿠싱 증후군), 부신 기능 감소증(에디슨병) 등, 혈액 질환(빈혈, 백혈구 질환 등),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 기능 장애, 있는 경우 및 임신 등의 상태는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부위와 시술된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합니다.
- 3) 골 질환(골다공증, 골연화증 등)이 특정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임플란트가 뼈에 유착되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 의사와 상의합니다.

### 2. 임플란트 수술 후 주의사항

- 1) 수술 후 일주일간은 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은 절대로 삼갑니다.
- 2) 수술 후 즉시 지혈을 위해 한 시간 정도 거즈를 물고 있어야 합니다.
- 3) 처방된 약을 시간에 맞추어 복용하면 통증과 불편함이 감소됩니다.
- 4) 침을 뱉거나 빨대를 이용하여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 5) 수술 후 코피가 날 수도 있으며 코를 풀지 않아야 합니다.
- 6) 의사가 냉찜질을 권하면 수술 부위의 통증을 줄이고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 7) 수술 후 2~3일 정도는 수술한 반대 부위로 유동식을 먹고, 베개도 평소보다 높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8) 수술한 부위가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칫솔질을 하고 입안 소독액으로 가글합니다.
- 9) 수술 후 심한 통증이나 부종 혹은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연락하고 내원합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임플란트는 충치나 잇몸병으로 치아가 소실되었거나 사고 또는 종양 등으로 인하여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턱 뼈와 잘 붙는 재료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턱뼈와 식립된 임플란트 본체 표면과 골 유착이 이루어진 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관리와 수술 후 사용하면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여부나 수술 후 경과 등에 대하여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로 오랫동안 자연치아처럼 사용이 가능해져서 기능과 미용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